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말 · 행동 · 생각이 그대로 입력돼요

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일 수 있고, 바늘 구멍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생각해서 진실하게 감사를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더 가깝게 있을수록 감사를 모릅니다. 당장에 생명을 유지 못하는 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하죠. 물을 쓰고, 불을 쓰고, 땅을 딛고

뿐이 아니라 무정물도 식물도 천차만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원래 전력이 똑같듯이 인간의 불성의 씨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 지어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입력이 돼서 그것이 현실에 나오며 생활 모두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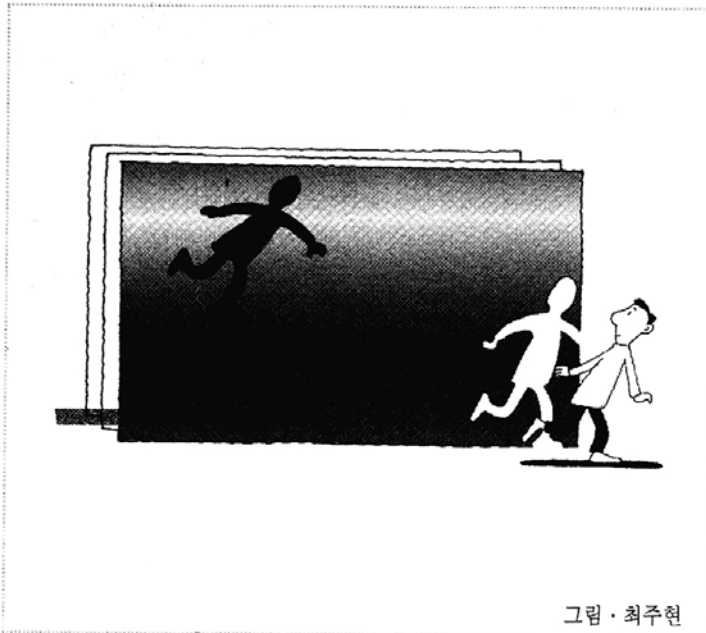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과거 살던게 입력돼 현실에 나오니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게 바로 참선

다니고 공기를 마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낱아주는 은혜와 일체 만물을 볼 수 있기에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를 기발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질 수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된다고 봅니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꼼꼼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고 벌레가 되느냐, 짐승이 되느냐, 날아다니는 새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됩니다. 부모가 살인을 했다거나 사상이 그르다거나 한다면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연관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문제가 결부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 생성, 즉 무정물이든지, 식물 이든지, 지·수·화·풍이든지를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공공하니 거기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죽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하며, 잘 안되는 것은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느니 하는 이러한 문제 등등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기 때문에 맑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 지금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한순간에 짐같이 내 몸이 사대로 흘러서 제각기 불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도 가져갈 게 없다는 겁니다. 몸도 가져갈 수 없고, 재산도 가져갈 수 없고 또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도 같이 갈 수 없고, 어떠한 권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이든 선업이든 업식만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이죠. 그 업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짐승으로 나오느냐, 벌레의 모습으로 나오느냐, 새의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진정코 무서운 도리라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일체 만물 만생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천차만별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방치하는데, 사람의 의식으로 생활을 하고 살다가 만약에 짐승이나 땅 속의 벌레나 독사들이 짝짓기 하는데 들어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 세상만사 부처님법 아닌것 하나 없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앞길 주어져요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넘마는 넘마마진에 있고, 금은 금방에 있습니다. 강통은 강통전에 있고 무쇠는 무쇠전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끼리 끼리들 모두 모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모습을 짓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으로 살다가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울고 발버둥쳐도 개로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멍멍 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 나왔다면 새소리로 지저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말을 해도 세상사람은 들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천데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마음의 도리가 매우 귀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생활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드리는 것은, '과거에 살던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짚어가다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가 나오는 거리가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가 생각하고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놓고 다시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넣으면 넣는 대로

이렇게 이 마음의 도리가 매우 귀중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생활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입니다.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일러드리는 것은, '과거에 살던 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이니 현실에 나오는 것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자기가 땅을 짚어가다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을 자기한테 다 맡겨놓고 잘된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도 거기가 나오는 거리가 잘되게 돌리는 것도 거기가 생각하고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라, 이것이 본래 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가 맡겨놓고 다시 입력을 시키면 과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넣으면 넣는 대로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악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허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 생활속의 불교 207

#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경쟁, 알면 공부

인생이란 '움아!' 하고 고고성을 울리며 나왔을 때 이미 예고 없는 사형 선고받는 가운데 일생을 공숙의 일처럼 살다가 돌아가는 것이다. 또는 잠깐 이승에 소용나 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육신·재산·권력·명예라는 게 본래 실체가 없어서 허망한데, 잘나 동안 살면서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을 놓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울고불고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전에 말 한마디라도 오순도순 품게 해야 하고 일을 해도 용화를 도모해야 하고 서로 마음을 거슬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몸 떨어지면 그뿐이 아니냐고 할 때 삶의 의미를 알게 되겠는가.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마치 사형이 확정된 죄수와 같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나는 내 인생을 몇 년 동안 관리할 뿐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마음은 생사의 걸림에서 벗어나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절절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한 걸 살다 가는 나그네이다.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평등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매사를 내 뜻으로 돌리며 넓은 아량과 지혜를 가진 인간으로 사느냐, 아니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모진 마음으로 나가느냐, 각자 판단해 볼 일이다. 다만 한 걸 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는지 도저히 기억할 길이 아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인생의 최대 문제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계에서 위 차원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다시 지금의 차원을 되풀이 하느냐, 아니면 아래 차원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 해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참 나를 깨달으면 영원히 밝은 세계를 보게 된다.

사람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혹은 기뻐하고, 혹은 괴로워한다.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 쾌락의 꿈과 고통의 꿈에서 깨어나 크게 한 번 절절 웃고 명철한 눈으로 이 세계의 참모습을 보며 살아야 한다.

대체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까마득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수십 수백만의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기껏해야 백 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어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청상유수 같은 언변도 일단 몸을 여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른 유위법적인 보람도 무의미해진다. 그런 것을 바라고 마음 뒤는 것은 정녕코 아니다. 고작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위대했던 아무개' 라는 소리가 전해진다 한들 뿌리 없는 일이나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자기의 참 주인공의 해후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나은 일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현대인들은 예전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현대인들은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하는 데 쓰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사는 데 급급해서 공부할 겨를이 없다고 말한다. 그 시간에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하다는 식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공부를 한다면 마치 부업하듯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토록 비벼 살면서도 여전히 인생살이가 힘겹다고 한다.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공부할 사이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고통이 모두 나로부터 나온 것이니 나온 곳에도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 노른자위 안에서 노른자위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이란 모르면 생존 경쟁이지만 알고 보면 공부이다.

협찬: 주인공